

한국어에서의 논항 이동과 pro*

엄 홍 준

(중앙대학교)

Hong-Joon Um. 2010. A-Movement and pro in Korean. *Studies in Modern Grammar* 59, 67-8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when Noun Phrase (NP) moves, it may leave not only NP trace but also pro in Korean. In languages like English, Subject NP, which has no Case, in the non-finite clause moves into the SpecCP of the matrix sentence to license its Case, so that its trace has no Case and is treated as anaphor. However, in languages like Korean, Subject NP, which has Case, in the finite clause moves into the SpecCP of the matrix sentence. If its trace is treated as a normal NP trace, some questions arise immediately. Why is it that the trace occurs in the Case position unlike normal NP trace? Does the trace observe the Binding Theory A? In this paper, we prove that this trace is pro because pro can occur in the Case position and follow the Binding Condition B.: on the other hand, NP trace cannot appear in the Case position and violates the Binding Theory A. Besides, since this phenomenon is observed only in the pro-drop languages, this paper claims that Korean can be also regarded as a pro-drop language. And some remaining problems are suggested in the discussion we had.

Key words: A-movement, pro, NP-trace, Binding Theory, Case position, pro-drop language.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한국어에서의 명사구 이동은 영어와는 달리 흔적을 남길뿐만 아니라 pro를 복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생성문법 하에서는 명사구가 이동을 할 때 원래 위치에 그 흔적을 남기는데 이 흔적은 격이 없고 대용사

* 이 논문은 2010년도 현대문법학회 동계학술대회(2010. 2. 2. 경북대학교 우당교육관)에서 발표한 '한국어에서의 논항 이동과 pro'를 수정하고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발표 때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류의 성질을 지닌다고 가정된다.

하지만 다음의 구문에서의 이동은 전형적인 명사구 이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문으로 보인다.

- (1) a.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신 것 같다.
 b.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신 것 같으시다.
 c. [할아버지께서_i [[CP e_i 노인정에 가신] 것] 같으시다]]
- (2) a. 철수가 영희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b. 철수가 영희를 예쁘다고 생각한다.
 c. 철수가 영희를_i [CP e_i 예쁘다고] 생각한다.
- (3) a. 철수는 영어를 배우기 어렵다.
 b. 철수는 영어가 배우기 어렵다.
 c. 철수는 영어가_i [[PRO [e_i 배우]] [기]] 어렵다.

(1)–(3)에서의 b는 모두 a에서 명사구 이동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 하에서는 명사구의 흔적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흔적은 격을 인허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구 흔적과는 다른 성질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명사구 흔적은 격을 지니지 말아야 하고 또한 대용사류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결속 이론 A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위치에 있는 요소는 격을 인허받는 위치에 있어 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흔적은 결속 이론 A에 따라 내포절 안에서 결속되어야 하는데 그 절 안에서는 이 흔적을 결속할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아 결속 이론 A를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흔적을 명사구 흔적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¹⁾

이 논문에서 우리는 이들 구문에서 나타나는 공범주가 pro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2장에서는 생성문법 하에서의 일반적인 이동 즉 명사구 이동과 WH-이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알아 본 이동 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1)–(3)의 문장을 분석하고 이것이 pro라는 것을 밝힌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볼 수 있는 한국어의 특징이 다른 언어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분석이 보편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5장에서는 한국어가 pro-탈락 언어로 구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이고 우리가 알아

¹ 혼동을 피하기 위해 명사구 흔적의 의미를 밝히고자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명사구 흔적이란 생성 문법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격이 인허되지 않고 대용사류로 분류되는 공범주를 말한다.

본 현상은 pro-탈락 언어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2. 명사구 이동과 WH-이동

생성문법에서 이동은 명사구 이동과 WH-이동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4) a. John_i seems [t_i to be happy]
b. What_i did you buy t_i ?

(4a)는 명사구 이동을 보여주는 예문인데 여기서는 내포절에 있는 John이 모문의 주어 위치로 이동을 하고 원래 자리에 흔적을 남긴다. 우리는 이것을 명사구 흔적(NP-trace)이라고 부르고 있다. (4b)는 WH-이동을 보여주는 예인데 what이 buy의 보충어(complement) 위치에서 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고 원래 자리에 흔적을 남긴 경우이다. 우리는 이것을 WH-흔적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이동은 명사구의 경우에는 격을 인허받기 위해서 혹은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를 준수하기 위해서 일어난다고 본다. (4a)은 다음과 같은 도출과정을 겪는다.

- (5) e seems [John to be happy]

여기서 John은 명사구이고 명사구는 격을 지녀야하는데 이 위치는 격을 인허받는 위치가 아니다. 그래서 (6)과 같은 격 여과를 준수하기 위해 격을 인허받을 수 있는 위치인 T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이 자리는 모문의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확대투사원리를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채워져야 한다.

- (6) 격 여과(Case filter, Chomsky 1981:49)

모든 음성내용을 지닌 명사구는 격을 지녀야 한다.

- (7) 확대투사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Hageman 1992:68)

모든 절에는 주어가 있어야 한다.

이렇듯 명사구의 이동은 격 여과 혹은 확대투사원리를 준수하기 위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²⁾

한편 WH-이동의 경우에는 C의 [+wh] 자질을 충족시키기 위해 WH-요소가 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8) [_{CP} What_i [_C did [_{IP} you buy t_i]]]?
 [+wh] [+wh]

이러한 이동은 한국어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먼저 명사구 이동에 대해서 고려해 보기로 하자.

- (9) a. 학생들이 이 책을 많이 읽는다.
 b. 이 책이 학생들에게 많이 읽힌다.

(9a)는 (9b)의 능동문이고 (9b)는 (9a)의 피동문이다. 생성문법에서는 영어에서의 수동문과 한국어에서의 피동문은 해당되는 능동문과 서로 의미적인 관련성은 있지만 구조적인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여겨 (9b)의 이른바 기저구조를 (10a)로 설정한다.³⁾

- (10) a. [_{CP} [_{TP} [학생들에게 [많이 [이 책] [읽히]]]] _{NP} -다].
 b. [_{CP} [_{TP} 이 책이 [학생들에게 [많이 [t] [읽히]]]] _{NP} -다].

(10a)에서 ‘이 책’ 이 TP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고 원래 자리에 흔적을 남기

²⁾ 최근의 최소주의 이론 하에서는 확대투사원리를 준수하기 위해서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Chomsky 1995, 2000, 2001). 왜냐하면 격 인허는 이동에 의하지 않고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³⁾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예들은 능동문을 수동문의 기저 구조로 볼 수 없음을 확인시켜준다.

- a. Every student in this classroom speaks two languages.
 a' Two languages are spoken by every student in this classroom.
 b. Beaver builds dams.
 b' Dams are built by Beaver.

는데 이것이 명사구 흔적의 예이다. 이러한 명사구 이동은 흔히 ‘명사구가 격을 지녀야 한다.’는 격 여과를 피하기 위해 즉 명사구가 격을 지니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a)에서 ‘이 책’은 격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으면 격 여과를 위반하여 비문이 된다. 따라서 격 여과를 준수하려면 격이 있는 자리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 자리가 주어 자리(즉 TP의 지정어 위치)이다. 이렇듯 명사구 이동은 격을 인허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격을 인허받는 자리로 이동한다. 물론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확대투사원리를 준수하기 위해 이동한다고 볼 수도 있다(각주 3)를 참고하기 바란다.).

한국어에는 또한 WH-이동도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11) a. 너는 철수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느냐?
 b. 너는 철수가 놀로 좋아한다고 생각하느냐?
 c. 너는 철수가 영이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느냐?
 d. 너는 철수가 영이로 좋아한다고 생각하느냐? (서정목 2000:107)

(11)에서 볼 수 있듯이 외현적으로 한국에서는 WH-이동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즉 WH-요소인 ‘누구’가 내포질의 동사 ‘좋아하-’의 보충어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1b)와 (11d)와 같은 경상도 방언의 경우는 (11a)와 (11c)와는 달리 문말 형태소가 다르게 나타난다. 즉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오’가,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는 ‘-아’가 나타난다.

그래서 문말 형태소인 ‘-오’가 [+wh] 자질을 지닌다고 가정하고 ‘-아’가 [-wh] 자질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11b)의 논리형식부(LF, Logical Form)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2) [놀로_i [나는 [t_i ‘[철수가 t_i 좋아한] -다 -고] 생각하느니-] -오]

문말 형태소인 ‘-오’가 [+wh] 자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wh] 자질을 지니고 있는 의문사가 논리형태부에서 모문의 CP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여 그 자질을 인허한다. 이러한 가정이 옳다면 우리는 한국어에서도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WH-이동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에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명사구 이동과 WH-이동이 존

제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명사구 이동은 명사구가 격을 인허받기 위한 이동이고 WH-이동은 [+wh] 자질을 확인하고 인허하기 위한 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동과 다른 이동이 한국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3. 한국어에서의 명사구 이동과 pro

2 장에서 알아본 것처럼 명사구 이동은 다음과 같은 동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13) 명사구 이동의 동인(driving forces)

- a. 격 인허
- b. 확대투사원리 준수

하지만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에서의 이동은 위의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14) a.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신 것 같다.

b. [pro [[_{CP}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신] 것] 같다

c.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신 것 같으시다.

d. [~~할아버지께서~~_i [[_{CP} ~~e_i~~ 노인정에 가신] 것] 같으시다]]

(14a)는 (14b)의 구조를 지닌다. 즉 ‘-것 같다’는 절을 취하는 1항 술어이고 따라서 내포절 안에 ‘할아버지께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모문의 주어는 pro로 가정된다. 왜냐하면 2 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모든 절은 주어를 가져야 한다.’는 확대투사원리를 준수해야하기 때문이다.⁴⁾

(14c)는 ‘할아버지께서’가 모문의 주어 위치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예문이

⁴ 익명의 심사자가 모문의 주어 위치에 있는 pro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 pro는 영어의 허사(expletive) it과 같은 허사 pro임을 밝힌다. Jaegli & Safir(1989)에 의하면, 의미역을 지닌 영주어가 나타나는 언어에서는 반드시 의미역을 지니지 않은 영주어가 나타나지만 의미역을 지니지 않은 영주어가 나타나는 언어에서는 반드시 의미역을 지닌 영주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어는 허사 pro가 있지만 의미역을 지닌 pro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 존칭선어말 어미 ‘-시-’ 는 자신이 속한 절에서 존대의 자질을 지닌 어휘와 일치체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이 정확하다면 (14c)는 (14d)의 구조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14d)의 공범주는 당연히 (15)와 같이 명사구 흔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15) [할아버지께서 [[_{CP} t 노인정에 가신] 것] 같으시다]

명사구 이동은 일반적으로 흔적을 남기는데 만약 이 흔적이 통상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그 흔적이라면 문제가 발생한다. 명사구 흔적은 흔히 격이 없는 자리에 나타나고 또한 그 자질이 대용어 자질을 지닌다고 알려져 있다.

(16) 공범주 (Chomsky 1982)

- | | |
|-----------------|----------|
| a. 명사구-흔적 | [+a, -p] |
| b. PRO | [+a, +p] |
| c. pro | [-a, +p] |
| d. 변항(variable) | [-a, -p] |
- a=대용사류(anaphoric), p=대명사류(pronominal)

따라서 이 흔적은 격을 지닌 위치에 나타나면 안 되는데 이 위치는 격을 인허받는 위치이다. 또한 (16)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명사구 흔적은 대용사류에 속하는데 이런 부류의 요소들은 결속이론 A를 준수해야 한다.

(17) 결속이론 (Chomsky, 1981:188)

- A. 대용사류는 자신의 지배 범주 안에서 결속되어야 한다.
- B. 대명사류는 자신의 지배 범주 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 C. 지시 표현류는 언제나 자유로워야 한다.

하지만 이 흔적은 지배범주(여기서는 하위절의 IP(혹은 TP))에 결속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절 안에 이 흔적을 결속할 선행사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요소를 WH-흔적이나 pro로 보아야 하는데 WH-흔적은 모문의 주어 위치로 이동해 간 명사구에 의해 결속이 되어 결속 이론 C를 위반하기 때문에 제외된다.

그렇다면 pro를 고려해 보기로 하자. 이 요소는 격을 지닐 수 있고 대명사류에 해당하는 결속이론 B를 준수하기 때문에 합당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즉 ‘할아버지께서’의 원래 위치는 내포절의 주어의 위치이기에 격을 인허받는 자리라는 것을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그리고 pro는 ‘지배범주 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결속이론 B를 준수하고도 있다. 따라서 이 요소를 다음과 같이 pro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⁵⁾

(18) [할아버지께서 [[_{CP} pro 노인정에 가신] 것] 같으시다]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또 다른 예를 알아보기로 하자.

- (19) a. 철수가 [_{CP} 영희가 예쁘다고] 생각한다.
 b. 철수가 영희를 예쁘다고 생각한다.
 c. 철수가 **영희를** [_{CP} e 예쁘다고] 생각한다.

논의에 앞서 우선 내포절의 '영희가'가 모문으로 이동하였다는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Kim and Kim(2003)에서는 Kuno(1976)에서 제시한 일본어의 예를 한국어로 고쳐 제시하고 있다. 그 중 몇 가지만 알아보기로 한다.

- (20) a. 철수가 순희를 바보처럼 천재라고 생각한다.
 b. *철수가 순희가 바보처럼 천재라고 생각한다.
 c. %철수가 그가 바보라고 생각한다.
 d. *철수가 그를 바보라고 생각한다.

(20a)가 정문이 되는 것은 ‘바보처럼’이 모문에 속하는 부사라고 볼 수 있는데 즉 ‘생각한다’와 어울리는 부사인 데 이 부사의 왼쪽에 있는 ‘순희를’이 모문에서 대격을 인허받아 즉 모문으로 내포절의 주어가 이동하여 모문의 동사(타동사)로부터 격을 인허받았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20b)가 비문이 되는 것은 내포절에서 ‘순희’가 주격을 인허받았기 때문에 모문의 요소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부수적으로 ‘바보처럼’은 이런 환경에서는 내포절에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고

⁵ 우리의 논의에서 PRO는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이 공범주는 격을 인허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는 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볼 수 있다.).

(20c)가 (20d)처럼 완전히 비문으로 처리되지 않는 이유는 ‘그가’가 내포절에 있어서 결속이론 B를 준수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28d)가 비문인 이유는 ‘그를’이 모문에 있다고 가정하면 결속이론 B를 어기게 된다. 따라서 (28d)가 비문으로 정확히 판정되려면 ‘그를’이 모문에 위치해야 한다. 결국 내포절에서 모문으로 이동했다고 전제하여야 이러한 판정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우리의 분석 하에서 (19b)의 올바른 구조는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 (21) a. 철수가 **영희를** [_{CP}[_{TP} t 예쁘다고]] 생각한다.
 b. 철수가 **영희를** [_{CP}[_{TP} **pro** 예쁘다고]] 생각한다

내포절의 주어 자리가 (21a)에서처럼 통상적인 명사구 흔적이라고 가정해 보기로 하자. 이런 가정 하에서는 앞서 알아보았던 분석과 같은 결과가 초래됨을 알 수 있다. 즉 이 자리는 주격을 인허받은 주어 자리였기 때문에 즉 격을 인허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구 흔적은 올 수가 없다. 또한 흔적 t는 대용사류이어서 결속이론 A를 준수해야 하는데 결속자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위반하게 된다. 한편 이 t를 WH-흔적이라고 본다면 결속이론 C를 준수해야 하는데 ‘영희를’에 의해 결속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요소는 격도 인허받고 결속이론도 준수하는 pro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pro는 이 위치에서 주격을 인허받고 또한 대명사류가 속하는 결속이론 B도 준수한다. 따라서 (21b)의 구조가 올바른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은 현상을 보이는 구문 하나만 더 보기로 하자.

- (22) a. 철수는 영어를 배우기 어렵다.
 b. 철수는 영어가 배우기 어렵다
 c. 철수는 **영어**가 [[PRO [e 배우]] [기]] 어렵다. (김영희 1988)⁶⁾

위의 두 예는 내포절의 주어가 모문의 주어와 목적어 위치로 이동하여 각각 주격과

6) 이러한 분석과 다른 분석은 Yeo(2005)를 참조하길 바란다.

대격을 인허받는 예였다. 위의 예문은 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내포절의 목적어 위치에서 모문의 목적어 위치로 이동하여 주격을 부여받는 심리형용사 구문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앞의 두 예들과 거의 같은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22b)는 (22a)의 구조에서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우리는 (22c)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심리형용사 ‘어렵-’은 2항 술어라는 점이다. (22c)에서 내포절에 있는 대격을 지닌 목적어 ‘영어를’이 모문의 목적어 자리로 이동하여 주격을 인허받는다.⁷⁾ 여기서 내포절에 있는 명사구의 흔적이 과연 통상적인 명사구의 흔적이냐는 문제가 똑같이 대두된다.

- (23) a. 철수는 **영어가** [[PRO [t 배우]] [기]] 어렵다.
 b. 철수는 **영어가** [[PRO [pro 배우]] [기]] 어렵다.

(23a)와 같이 분석하면 앞의 분석에서 언급되었던 문제점이 고스란히 생긴다. 즉 명사구 흔적은 그 지배 범주 안에서 결속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격을 인허받으면 안 되는 이 자리는 격을 인허받는 자리이다. 따라서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23b)처럼 분석하여 이 흔적을 pro로 본다면 문제가 해결된다. 즉 pro이기 때문에 지배범주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또한 격을 인허받는 데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⁸⁾

4. 범언어적인 고찰

3장에서 알아본 현상이 한국어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닌 범언어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분석이 타당함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의 예를 고려해 보기로 하자.

- (24) a. **Jan** sanble **li** pati
 ‘John seems he leaves’

⁷ 여기서 왜 심리형용사 구문에서 목적어가 대격을 인허받지 않고 주격을 인허받는지에 관해서는 Lee(1992)과 최기용(2006)을 참고하길 바란다.

⁸ 익명의 심사자가 남겨진 흔적이 왜 pro이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즉 pro가 이동 후에 남겨질 수 있는냐에 대한 문제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연구되어야 할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지금으로선 이러한 결론이 최선이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4장에서 제시될 많은 경험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이것이 증명된다.

- b. pro sanble **Jan** pati
 'It seems that John left'
 c. ***Jan** sanble pati
 'John seems leave' 아이티 크레올 (Vivian Deprez, 1992)

(24a)에서 Jan은 (24b)에서 볼 수 있듯이 내포절의 주어 자리에서 이동을 하고 그 자리에 외현적인 대명사를 남긴다. 만약 이 구문이 (24c)에서처럼 명사구 흔적을 남긴다면 비문으로 판정받는데 그 이유는 역시 앞서 논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속이론과 격 여과에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명사구 흔적이라면 격을 인허받아서 안 되는데 그 자리는 격을 인허받는 자리이고 또한 명사구 흔적은 대용사류이기에 결속이론 A에 해당되어 그 지배범주 안에서 결속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반면에 영어를 고려해 보기로 하자.

- (25) a. Richard seems [_{IP} to be in trouble]
 b. e seems [_{IP} Richard to be in trouble].
 c. *Richard seems [_{CP} that [_{IP} t is in trouble]]
 d. *Richard seems [_{CP} that [_{IP} he is in trouble]]
 e. It seems [_{CP} that [_{IP} Richard is in trouble]]
 f. *e seems [_{CP} that [_{IP} Richard is in trouble]]

(25a)는 (25b)의 구조에서 Richard가 모문의 주어로 이동한 구문이다. 지금까지의 분석과는 달리 내포절이 부정사절이다. 따라서 시제절이 아니라는 것은 주격 인허자(여기서는 AGR 혹은 Tense)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흔적은 통상적인 명사구 흔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격이 필요가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격 여과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흔적의 지배 범주⁹⁾는 모문이기 때문에 결속 조건 A를 충족시킨다.

(25c)가 비문인 것은 명사구 흔적이 격을 인허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¹⁰⁾

⁹⁾ GB 이론 하에서 이 흔적의 지배 범주는 모문의 IP가 되는데 이 흔적의 지배자가 선행사인 Richard가 되고(연결동사(bridge verb) seem으로 보기도 한다.) 또한 접근 가능한 주어, AGR도 있기 때문이다.

¹⁰⁾ 이것을 pro로 보면 문제가 없지만 아래 (25f)의 설명과 같이 영어는 pro-탈락 언어가 아니어서 이러한 분석은 배제된다.

즉 계속해서 언급해왔듯이 명사구 흔적은 격을 인허받지 않으며 대용사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물론, 시제절 조건에 의해 즉 시제절 안에서는 어떤 요소도 그것의 밖으로 이동 될 수 없다는 조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¹¹⁾).

(25d)가 비문인 것은 that-절에서는 복사 인상(copy raising)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Heycock(1994)에서는 like, as if와 as though 류는 전치사이고 that은 보문소라고 지적하면서 복사 인상은 이들 전치사류의 보충어절에서만 가능하고 that-절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26) a. Richard seems as if he is in trouble.
 b. It seems as if he is in trouble.
 c. *Richard seems that he is in trouble.
 d. It seems that Richard is in trouble.

(25f)가 비문인 것은 확대투사원리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모문의 주어가 pro라고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만 영어는 pro-탈락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외현적인 요소가 주어 위치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25e)는 정문으로 판정된다.

이제 터키어에 대해서 고려해 보기로 하자.

- (27) a. **Biz**_i san-a [_{CP} **pro**_i sūt iç-ti-**k**] gibi görün-dü-**k**
 we-NOM you-DAT milk drink-PST-1PL like appear-PST-1PL
 We appeared to you to have drunk milk'
 b. **pro**_i san-a [_{CP} **Biz**_i sūt iç-ti-**k**] gibi görün-dü-**k**
 It appeared to you that we drank milk' 터키어 (Mulder 1976)

Moore(1998)는 George and Kornfilt(1981)의 주장을 수용하여, 터키어는 정형절과 비정형절의 특성이 시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치소에 의해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일치소가 있는 위의 예들이 정형절의 역할을 하고 일치소가 없는 절들이 비정형절의 역할을 한다.¹²⁾ (27b)는 영어에서 it 대신에 pro가 확대투사원

¹¹ 시제절 조건(Radford 1981:249)

시제절의 어떤 요소도 그 절 밖으로 이동할 수 없고 그 절 밖에 있는 다른 요소로 해석될 수 없다.

¹² 불일치 직접 보어(Non-Agreeing Direct Complement)

리를 만족시키고 있어 정문이 되는 경우이다. Pro-탈락 언어에서는 이렇게 공범주인 pro가 주어가 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7a)는 (27b)의 내포절에서 주어가 모문의 주어로 이동한 구문이다. 내포절의 주어는 정형절이기 때문에 주격을 인허받는 위치에 있어 통상적인 명사구 흔적이 될 수가 없다(물론 결속이론 A도 위반한다.). 따라서 격도 인허받을 수 있고 결속 이론도 충족시킬 수 있는 pro가 와서 정문으로 판정된다.

5. 한국어가 pro-탈락 언어인가에 대한 문제

이 장에서는 한국어가 pro-탈락 언어인가에 대한 재조명을 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면 이동 후 pro가 나타날 수 있는 구문을 지닌 언어는 pro-탈락 언어였기 때문에 한국어도 그러한 현상을 보인다면 pro-탈락 언어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5. 1 Huang(1984, 1989)

한국어가 pro일 가능성은 Huang(1984, 1989)의 연구에서 비롯된다. 그는 중국어가 비록 pro-탈락 언어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지는 않지만 pro-탈락 언어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28) a. Zhangsan shuo [(ta) lai le]
Zhangsan said that (he) came.
b. Zhangsan xiangxin [(ta) hui lai]
Zhangsan believe he will come.

-
- a. Sen herekes-e [_{IP} t viski-den iç-miş] gibi görün-üyor-sun.
you-NOM everybody-DAT whisky-ABL drink-EVID like appear-PROG **2SG**
'You appear to everyone to have drunk some whisky.'
b. **Biz** san-a [_{IP} t süt iç-ti] gibi gel-di-**k**
we-NOM you-DAT milk drink-PST like appear-PST-**IPL**
'We seem to you to have drunk milk'

위의 예문에서 내포절이 비정형절이 되는 이유는 ((27)에서와 달리 일치소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내포절은 IP가 되고 (27)의 내포절은 CP가 된다.

- (29) a. *wo bi Lisi [ta lai]
 I force Lisi he come
 b. *Lisi shefa [ta lai]
 Lisi try he come

Huang(1984, 1989)에 의하면 중국어도 격 여과(Case Filter)에 해당되고 INFL (또는 AUX)에 있는 요소에 의해 지배될 경우에만 절의 주어에 격이 할당된다고 가정한다면 (28)의 예문에서 내포절의 외현 주어 ta가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위치가 지배되고 격을 인허받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다. 이러한 분석이 옳다면 같은 위치에 있는 내현 주어 즉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주어는 pro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29)의 문장에서는 내현 주어만이 올 수 있는데 모문의 동사가 통제 동사이고 이들 동사는 AUX가 없는 내포절을 하위범 주화한다. 그래서 이 공범주는 외현주어 ta가 출현할 수 없어 PRO가 된다고 한다.

Huang(1984, 1989)의 주장을 정리하면 중국어에서는 정형절에서 영주어가 출현하는데 그것은 pro이고 비정형절에서 영주어가 출현하면 PRO가 된다.

5. 2 김용석(1994)

김용석(1994)에서는 Hasegawa(1985)의 견해를 따라, pro는 강일치소를 갖는 대명사 탈락 언어의 시제절 주어 위치에 나타나고 PRO는 격-자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비시제절 등의 주어 위치에 나타난다고 한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은 약일치소를 가지므로 일치소의 명사구-자질이 pro의 파이-자질을 검사할 수 없으며, 또한 이들 언어에서 주격 명사구의 격-자질을 검사하는 시제의 명사구-자질은 선택적 자질이라고 가정한다. 그 결과 이들 언어에서는 결코 pro가 나타날 수 없으며 비시제절은 물론 시제절이더라도 시제의 명사구-자질이 선택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절의 영주어가 격 검사를 요구받지 않는 PRO로 해석되고 시제의 명사구-자질이 선택되는 경우에는 그 시제절의 영주어는 오직 격-자질을 갖는 변항으로 해석된다고 한다.

- (30) a. 철수가_i [PRO_i 영화를 때렸다고] 말했다.
 b. Op_i [철수가 [t_i 영화를 때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곧 Huang(1989)에 의한 설명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왜 영어도 약일치소 자질을 가진 언어로 분류되는데 영주어(여기서는 변항)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¹³⁾ 또 다른 문제는 문장에서 어떤 위치(여기서는 주어)에 있는 요소가 중의적으로 해석을 가질 수 있지만 그 해석에 의해 두 개의 다른 요소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30)에서 볼 수 있듯이 내포절의 주어는 ‘철수’와 동지표가 될 수도 있고 이지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가 하나는 PRO가 되고 또 다른 하나는 WH-흔적과 같은 변항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만약 (30a)와 (30b)에서 내포절에 있는 PRO와 변항을 pro라고 본다면 김용석과 같이 두 개의 도출 구조 없이도 설명이 가능하다. 즉 pro는 대명사류이기 때문에 지배 범주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결속 조건 B를 준수해야 한다. ‘철수’와 다른 지표를 갖는다면 결속자가 없기 때문에 결속 조건 B를 준수하게 되고 동지표를 갖는다고 해도 지배 범주 안에서 이 pro는 결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속 조건 B를 준수하게 된다. 따라서 두 개의 다른 도출 구조는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31) 철수가_i [pro_{ij} 영희를 때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30b)에서의 내포절 주어가 왜 변항인지에 대한 설명이 곤궁하다. 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이고 pro가 아니기 때문에 변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변항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공운용소를 도입하는데 이 공운용소 도입의 타당성을 증명해야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다.

5. 3 양동휘(1984)

김용석(1994)의 주장과 반대로 PRO를 pro로 통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32) a. 철수가_i 영수에게 [e_i 영희를 만나도록] 설득했다.
b. 철수가_i 영수에게 [그가_i 영희를 만나도록] 설득했다.

¹³ 만약에 영어와 같은 언어가 성, 수, 인칭을 지닌 AGR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일치소를 가진다면 왜 pro가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또한 Jaegli & Safir(1989)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일치자질이 풍부한 언어에서도 김용석(1994)의 표현을 따르면 강일치소 자질을 지닌 언어에서도 영주어가 나타나지 않는 언어도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치자질이 영주어 출현의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모든 구문에서 어휘대명사(외현 대명사)와 공범주가 대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범주는 pro라고 여기고 한국어에는 PRO가 pro에 흡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Yoon(1998)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예에 의해 너무 강력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33) a. 존이 메리를 겁탈하려고 시도했다.
b. *존이 그가 메리를 겁탈하려고 시도했다.
- (34) a. 존이 빌에게 메리를 잡으라고 명령했다.
b. *존이 빌에게 그가 메리를 잡으라고 명령했다.
- (35) a. 존이 PRO 메리를 겁탈하려고 시도했다.
b. 존이 빌에게 PRO 메리를 잡으라고 명령했다.

5. 4 Pro-drop 언어와 한국어와의 비교

한국어는 위에서 논의하였듯이 pro-탈락 언어인가 아닌가에 대해 이견이 있다. 여기서는 pro-탈락 언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국어는 어떠한 현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pro-탈락 언어에 속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 (36) Pro-drop 언어에서 발견되는 특징.
 - a. 생략주어
 - b. 단순문에서의 자유로운 도치
 - c. 주어의 원거리 WH-이동
 - d. 내포절에서 공 재현 대명사
 - e. *[that-t]여과에 대한 의견상 위반 (Chomsky 1981, Bouchard 1984)

위의 사항에 대한 실례는 다음과 같다.

- (37) a. ho trovato il libro
I found the book
b. cha mangiato Giovanni
Giovanni ate

- c. l'uomo [che mi domando chi abbia visto]]
the man x such that I wonder who x saw
- d. ecco la ragazza [che mi domano chi crede [che possa VP]
'this is the girl who I wonder who thinks that she may VP'
- e. chi credi [che partir]]
who do you think [(that) will leave]

그렇다면 한국어는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먼저 (36a)를 살펴보면서 알아보기로 하자. 한국어와 같은 언어가 pro-탈락 언어가 아니라는 것에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구문이다. 즉 다음과 같은 문장은 비문이 된다.

- (38) a. *pro 책을 읽었다.
- b. *pro read the book.

한국어와 같은 언어는 굴절소가 풍부하게 발달하지 못하여 위의 이탈리아어와 같은 언어와는 달리 '영주어'를 복구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하자(Yoon 1998)

- (39) a. 철수가 [pro 가겠다고] 말했다.
- b. *John said that pro will go.

근문(root sentence) 또는 단순문에서는 pro의 출현이 비문이 되지만 내포절에서는 (38a)에서 보는 것처럼 정문이다. 이 위치는 주어 위치이고 격을 받는 위치이어서 pro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예문 (14b)가 여기에 해당된다.) 임흥빈(1985), 서정목(2000)에서 소위 상황 공범주라고 불리는 요소가 들어 있는 구문이 그것이다.

- (40) a. pro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신 것 같다.
- b. *pro seems that John went home.
- c. It seems that John went home.

(40)은 모문에서도 pro가 주어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영어에서는 이 구문과 대응되는 구문은 비문이

된다. 이렇듯 한국어는 pro가 주어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구문이 상당히 많을 듯하다. 한편 이 자리는 PRO가 올 수 없는 자리인데 PRO는 의미역 위치에만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40a)의 pro는 PRO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이다.

Pro-탈락 언어의 또 다른 특징은 단순문에서의 도치인데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도치가 아주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41) e 밥을 먹었다 철수가.¹⁴⁾

(36c)–(36e)의 특징을 지닌 구문은 한국어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42) a. 내가 [t 누구를 만났는지] 궁금해 하는 남자.
 b. 이 사람은 내가 [pro 어제 영화를 보았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다.
 c. 누가 너는 [t 떠났다고] 생각하니?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에서는 근문에서의 영주어 현상을 제외하고는 pro-탈락 언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모두 발견된다. 그래서 Jaeggli와 Safir(1989)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보이는 중국어, 일어, 한국어 등을 pro-탈락 언어로 구분하고 있다.¹⁵⁾ 이러한 분석이 옳다면 pro-탈락 언어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논항 이동과 서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즉 시제절에서의 논항 이동은 pro-탈락 언어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5. 결론 및 남은 과제

이 논문에서는 우리는 한국어에서 명사구가 이동할 때 남기는 흔적은 통상적인 명사구 흔적 이외에 pro를 복사한다는 것을 밝혔다.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명사구 이동은 비시제절의 주어 위치에서 일어나 그 흔적은 격을 받지 않고 대용사류의

¹⁴ 이 공범주가 무엇인지는 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통상적인 명사구 흔적이라면 이 위치는 격을 인허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이 위치를 pro라고 보아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철수가’의 위치가 어디인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즉 논항 위치라면 pro는 결속 이론 B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하게 되어 pro가 될 수 없다. 만약 이 위치가 비논항 위치라면 이 흔적은 변형이 되어야 한다.

¹⁵ 임채경(1992)은 Jaeggli와 Safir(1989)에서와 같이 한국어를 pro-탈락 언어로 구별하고 있지만 이들 주장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성질을 지닌다.

하지만 한국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시제절의 주어 위치에서도 명사구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 명사구 흔적을 영어에서와 같이 취급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함을 알게 되었다. 이 흔적은 격을 인허받는 위치에 있어 격을 지니게 된다. 격을 지닌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구 흔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흔적이 명사구 흔적이라고 가정하면 결국 이론 A를 준수해야 하는데 지배범주 안에서 결속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론 A를 위반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이 공범주가 pro라는 것을 확인한다. 시제절의 주어 위치는 격이 인허되는 자리이다. 따라서 이 공범주를 pro라고 한다면 pro는 격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소된다. 또한 pro는 대명사류이기 때문에 결국 이론 B에 해당되는데 지배범주 안에서 이 pro는 자유로워 이것도 준수한다.

이러한 현상은 pro-탈락 언어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들 언어의 한 특징으로 여겨질 수 있을 듯하여 pro-탈락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한국어는 근문에서의 현상만을 제외하고는 pro-탈락 언어가 보이는 특징 모두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한국어도 pro-탈락 언어라고 여기고 이들 언어에서는 명사구 이동의 흔적이 명사구 흔적과 pro가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분석에는 여러 미해결 문제가 남아있음도 밝히고자 한다. 우선 격 인허의 문제이다. 이러한 분석 하에서는 연쇄의 머리와 꼬리가 모두 격을 갖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Yoon(1996)은 연쇄를 재정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더 연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이런 연쇄 문제에 관한 또 다른 연구는 Deprez(1992), Ura(1984), Kim and Kim(2003)과 Yoon(2007)에서 볼 수 있다.).

이동에 대한 문제가 또한 발생한다. 우리가 알아본 이동은 모두 부적절한 이동(improper movement)이다. 모두 논항에서 출발하여 비논항을 거쳐 다시 논항으로 착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논문에서의 예문들은 비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부적절한 이동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

마지막으로 과연 우리의 예문들이 이동으로 분석되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이다. 임흥빈(2006) 등은 이러한 구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43) 철수가 영희를 [_{CP}[_{TP} pro 예쁘다고]] 생각한다.

‘생각하-’를 3항 술어로 취급하여 (43)의 구문을 이동으로 보지 않고 기저 생성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런 분석 하에서는 내포절의 주어가 pro로 기저 생성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 술어를 2항 술어로 볼 것이냐 3항 술어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 하지만 pro가 주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이 논문의 궤도에서 벗어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주제어: 논항 이동, pro, 명사구 흔적, 격 위치, 결속 이론, pro-탈락 언어>

참고문헌

- 김용석. 1994. 한국어의 공대명사 현상에 관하여. *생성문법연구* 4, 45-84.
- 김영희. 1988.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 서울: 탑출판사.
- 서정목. 2000. 변형과 제약. 서울: 태학사.
- 임채경. 1992. 영주어의 허가와 의미해석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홍빈. 1985. '국어의 통사적인 공범주에 대하여,' *어학연구* 21, 331-384.
- 임홍빈. 2066. '예외격 표시 구문은 과연 존재하는가,' *관악어문연구* 31, 95-156
- 최기용. 2006. '장형 부정 구문의 격 교체,' *언어* 31, 441-461.
- 양동휘. 1984. '확대 통제 이론. *어학연구*,' 20, 19-30.
- Bouchard, Denis. 1984. *On the Content of Empty Categories*. Dordrecht Foris.
- Chomsky, Noam.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omsky, Noam. 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the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omsky, Noam. 1995.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oam. 2000. 'Minimalist Inquiry: The Framework,' in *Step by Step: Essay i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ed. R. Martin, D. Michaels and J. Uriagereka, 89-155.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oam. 2001. 'Derivation by Phase,' in *Ken Hale: A life in language*, ed. M. Kenstowicz,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Deprez, Viviane. 1992. 'Raising Construction in Haitian Creole,'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0, 191-232.
- George, Leland M. and Jacklin Kornfilt. 1981. 'Finiteness and Boundedness in Turkish', in *Binding and Filtering*, ed., Frank Heny, 105-127. Cambridge Mass.: MIT Press.
- Hageman, Liliane. 1992. *Introduction to Government & Binding Theory*. Blackwell.
- Hasegawa, Nobuko. 1985. 'On the So-Called Zero Pronouns' in Japanese,' *The Linguistic Review*, 4, 289-341.
- Heycock, Caroline. 1994. *Layers of Predication*. New York: Garland Publishing Co.
- Huang, C. T. James. 1984. On the Distribution and Reference of Empty Category, *Linguistic Inquiry*, 15, 531-574.
- Huang, C. T. James . 1989. Pro-Drop in Chinese; A Generalized Control Theory, in *The Null Subject Parameter*, ed., Jaeggli, Osvaldo and Kenneth J. Safir. 185-214. Kluwer Academic publishers. The Netherlands.
- Jaeggli, Osvaldo and Kenneth J. Safir. 1989. The Null Subject Parameters and Parametric Theory. In *The Null Subject Parameter*, ed., Jaeggli, Osvaldo and Kenneth J. Safir. 1-44. Kluwer Academic publishers. The Netherlands.
- Kim, Dong Suk and Yong Ha Kim. 2003. 'Korean ECM Construction and the Theory of Phase,' *Studies in Modern Grammar* 33, 47-77.
- Kuno, Susumo. 1976. Subject raising. In *Syntax and Semantics 5: Japanese Generative Grammar*, ed. Masayoshi Shibatani, 17-49. New York: Academic Press.
- Lee, Jeong-Shik. 1992. *Case Alternation in Korean: Case Minimalit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Moore, John. 1998. 'Turkish Copy-raising and A-Chain Locality',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6, 149-189.
- Mulder, Jean. 1976. 'Raising in Turkish', in *Proceedings of the Second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 Society*, eds., Cathy Cogen et al. 298-307. The Berkeley Linguistic 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Radford, Andrew. 1981.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Ura, Hiroyuki. 1994. 'Varieties of Raising and the Feature-Based Bare Phrase Structure Theory',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7, Department of Linguistics, MIT, Cambridge, Mass.

Yeo Seungju. 2005. 'The Syntax of Tough-Construction in Korean',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5, 77-95.

Yoon, James Hye-Suk. 1996. 'Ambiguity of Government and the Chain Conditio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 14, 105-162.

Yoon, James Hye-Suk. 2007. Raising of Major Arguments in Korean and Japanese,'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5, 615-653.

Yoon, Seok-Hwa. 1998. On Distribution of pro in Korean. *Studies in Modern Grammar* 14, 63-83.

456-756 중앙대학교 교양학부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72-1
(031) 670-4949, hjlum@cau.ac.kr

투고: 2010년 1월 25일

수정: 2010년 2월 19일

게재확정: 2010년 3월 2일